

대한장애인탁구협회 감사보고서

■ 감사실시개요

1. 감사목적 : 2018년 대한장애인탁구협회 행정감사
2. 감사방법 : 실지감사
3. 주요범위 :
 - 2017년 행정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이행사항
 - 협회 전반의 행정운영사항
 - 기타 사무국 운영사항
4. 감사기간 : 2019년2월16일
5. 감사장소 : 대한장애인탁구협회 사무실

■ 전차 감사결과에 따른 이행사항

1. 국가대표선발전 관련
 - 규정대로 선발전 시행 6개월전 기준을 공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2019년 국가대표 선발전 관련해 2018년2월17일 1차공지를 했으나 정작 선발전 시행이 연내 이뤄지지 못했고 기준(국제등급분류, 장애인등록증 보유 등)이 변경됨으로써 혼선을 야기.
 - 특히 2018년에는 국가대표선발전의 기준을 수시로 변경함으로써 선수들의 선발전 거부 등 초유의 사태를 빚은 점은 반성과 개선이 필요함.
 - 국가대표 감독 코치 등 지도자에 장애인선수출신을 선발하자는 지적은 이행되지 못함. 차후 지속적인 논의와 개선이 필요함.
2. 국제대회 경기분석관 파견
 - 세계선수권대회에 분석관 명목으로 파견했으나 분석보고서 등이 작성되지 않아 효과 미흡.
 - 더욱이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만큼, 주요 국제대회에 분석관 파견을 재차 권고함.
3. 사무국 운영개선
 - 사무국운영규정의 신설, 매월 회계내용 공개 등 개선 노력이 시작된 것으로 평가함.
4. 국내대회 심판운영관련
 - 심판 로테이션 등에서는 개선하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심판배정의 불만이 나오고 있고 특히 청양 종합선수권대회와 시흥 도요타 어울림대회에는 협회 집행부가 심판을 선착순 모집하는 사태까지 빚어짐. 이는 심판위원회에서 심판

을 배정하는 내부규정을 어긴 조치로 향후 재발되어서는 안되는 사항임.

5. 후원회 운영관련

－ 장탁사랑후원회 후원금을 협회 운영비 부족으로 임의로 전용사용했고 이를 아직 변상하지 못하고 있음. 후원회 후원금은 후원회와 사용처를 협의토록 하고 기 전용한 후원금은 조속히 원상회복할 것을 권고함.

－ 그 외 후원금도 적극적인 모금활동이 필요하고 용도에 대해서도 선수지원 등 후원회와 협의를 거쳐 활용을 권고함.

6. 스탠딩 경쟁력 제고방안

－ 국제대회에서 경쟁력이 약화된 스탠딩 부분의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토록 감사지적했으나 이행되지 못함. 특히 선수등록에 장애인등록 규정이 의무화됨으로써 향후 9~10체급의 경쟁력 확보가 과제로 부각됨.

■ 감사결과

－ 지난해 대한장애인탁구협회는 박세준 회장님의 중도사퇴로 조용희 신임회장님을 보궐선임하는 등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후 다소간의 혼선이 있었지만 신임 회장님을 중심으로 새롭게 변모하는 협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대단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대장탁은 아픔을 겪은 만큼 더욱 성숙된 모습으로 발전할 것을 확신하면서 규약 제29조4항에 의거, 지난 2019년 2월16일 오전10시30분부터 14시까지 행정감사를 실시,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그리고 규약 제29조4항 2호와 3호에 의거 2019년 제1차 이사회와 1차 대의원총회를 포함 제2차 이사회 직전까지의 협회 행정에 대한 감사를 병행실시했음을 밝혀둡니다.

1. 회계부문

－ 회계감사는 2017년에 이어 2018년도 감사도 협회와 회계감사의 사정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점은 유감스러운 일임.

－ 사무국 요청으로 행정감사시 회계서류 검토한 결과 수입과 지출, 예산과 결산의 서류철과 영수증이 일치하고 통장잔고도 결산서와 다르지 않음. 2017년말 이월금 1억3,677만원에서 2018년에는 9,634만원으로 줄어든 것은 기초종목 관련 이월금이 집행됐고 장탁사랑후원금을 협회운영비로 전용사용한 결과로 판단했음.

－ 이월금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반납할 이나라기금 잔액 3,699만원이 포함된 것으로 실제 협회의 잔고는 5,361만원에 불과하고 특정목적의 지정기탁금을 제외하고 장탁사랑후원금을 반납할 경우 협회잔고는 마이너스 상태임.

－ 다만 2018년에는 도요타자동차의 국가대표선수 훈련지원금 1억원과 어울림대회 지원금 5천만원으로 선수들의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됐음.

- 사무국 직원들과 기초종목지도자의 퇴직충당금 5,598만원이 집행되지 못한채 협회 통장에 잔고로 남아있어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민원발생의 소지가 큰 만큼 대한장애인체육회와의 조속한 협의로 지급하기를 권고함

2. 임원선임 관련

- 가. 2018년10월11일 열린 이사회가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개최, 이날 의결한 임원 선임이 무효화됨으로써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인준이 취소되는 등 큰 문제를 야기했음에도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음. 재발방지를 위해 법제상별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권고함.
- 최경식 이사는 2018년7월30일 이사 사직서를 제출했음에도 집행부의 요청으로 사직을 보류하는 형태로 이날 이사회에 참석, 의사정족수에 포함된 후 다시 이날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규약 제30조1항 “이사 감사 또는 회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임.
- 나. 2019년1월10일 제1차 이사회에서는 회장에게 이사선임권을 위임했으나 이는 시도 회장단이 추천한 이사후보자들의 많아 그 선택을 위임한 것으로 규약 제24조4항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는 회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총회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규정절차에 따라 보완할 것을 권고함.
- 다. 신현달 부회장의 경우 규정 제22조 임원의 임기 1항을 적용할 경우 3임에 해당하는 만큼 제22조 2항과 7항의 절차를 거칠 것을 권고함.

3. 지역대회 평가의 개선

- 지역에서 열리는 전문체육대회에 대한 평가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함. 평가기준에 주관적인 평가기준이 많은데도 평가위원이 대회때마다 바뀌어 일정한 잣대를 적용하기 어려워 공정성 확보에 문제가 있음.
- 전국대회를 유치한 시도 협회에서는 대단히 큰 문제인데도 평가위원과 선수들의 공정하지 못한 평점 결과를 잣대로 대회 개최가 좌우되어서는 안 됨.

4. 전문체육위원회 구성과 운영

- 현재의 구성원중 올림픽 출전 등 경기인으로 활동한 전문선수 또는 객관적으로 전문가로 인정할 만한 위원이 부족, 구성원의 보강을 권고.
- 2019년1월10일 이사회에서는 포인트대회 2개소 추가를 만장일치로 결의했으나 1월18일 열린 전문체육위원회가 이를 취소기로 결의한 것은 전문체육위원

회의 월권임.

- 국가대표 선발전 참가자격중 국제등급 보유자여야 한다는 규정의 유예기간 설정을 권고함. 2018년2월17일 1차공지때 없었던 장애인등록 규정에 대해 유예기간을 설정한 것과 같이 국제등급 규정도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유예기간이 필요함을 권고.

5.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

- 면접 심사위원에 응모자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지역연고자의 평가참여로 공정성 확보에 문제점 노출.
- 특히 2018년 지도자 선발과정에서 불공정시비에 휘말린 심사위원이 2019년에도 다시 참여한 것은 지도자 선발의 공정성 확보 의지가 의문시됨.

6. 사무국 직원의 잦은 이직

- 사무국 직원의 잦은 이직으로 행정의 연속성과 전문성 결여가 우려됨. 더욱이 올들어 사무국직원의 급여를 삭감함으로써 사기저하는 물론 연이은 이직사태가 예상됨.
- 협회 운영비 충당 방안으로 협회 임원진의 찬조금 출연결의에 이어 시도협회의 분담금 시행을 권고함.

대한장애인탁구협회 감사 이 용 규

